# CHRISTIAN FRIENDS OF KOREA
#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

**CFK 9월 뉴스레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 에베소서 2:4-5,7-10**

## CFK의 기술팀과 의료팀이 8월 기술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다

8월 15일부터 31일까지,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CFK)의 팀 멤버들이 북한을 방문하여 CFK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인도주의적 사역들을 감당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방문에는 특히 저희의 노르웨이 파트너 단체인 Evangelisk Orientmisjon 소속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16, 17번 째 태양열/중력 수도 시스템을 CFK 후원 기관에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국가 결핵 표준 실험실의 업무에 대한 조언 및 상담 교육시간을 가졌으며, CFK의 호주 파트너 NGO인 Hepatitis B Free(B형 간염 프리)와 함께 B형 간염 진단 및 치료 클리닉을 열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긴장감이 감도는 북한에서 저희가 보통의 방문 때와 같이 생산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매우 감사했습니다.

2017년 8월, CFK의 기술팀 동료들이 해주 결핵 요양소의 직원들과 함께 찍은 사진

저희의 동역자들과 저희가 일했던 모든 시설들에서는 저희를 매우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지속되고 있는 높은 기름 값 때문인 듯 평소보다 교통량이 조금 적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평양에서의 삶의 리듬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전 방문과 비교해서 주목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변화는 아마도 저희가 묵는 호텔(평양)에 훨씬 적은 수의 손님이 있다는 것일 것입니다. 저희는 보통 호텔 내 큰 식당에서 밥을 먹었었는데 그때마다 테이블은 항상 손님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여행에서는 몇 번을 식사하는 동안 아무리 둘러보아도 저희가 유일한 손님이었습니다.

매 방문마다 저희는 많은 어려움들에 직면했고, 이번 방문 또한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희 방문기간의 끝자락까지 우기가 계속 되었는데, 따라서 저희 팀 멤버들은 뜨거운 열기와 비가 내리는 가운데 물이 가득 찬 도랑에 서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이는 정수 프로젝트를 끝마치는 것을 더 어렵게 (그리고 일하기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씨로 인해 작업이 더욱 어려웠던 상황

주요 프로젝트가 끝나자마자, 몇몇 멤버들과 저희의 운전수는 배탈이 났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희는 해주에 하루 더 머무르게 되었는데, 그날 오후 호텔 앞 광장에서 개최되는 큰 청소년 집회를 호텔 창문을 통해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약 3500명으로 추산되는 중고등 학생들이 그날 모이게 되었는데, 그들은 유니폼을 입고 한 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차려 자세로 서서 취주악단(금관악기로 구성된 악단)의 공연 및 연설들을 보고 들으며 많은 신호들에 합창으로 대답하였습니다. 많은 도시 생활 (특히 축제기간의)의 모습이 이 호텔 앞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호텔은 메인 시청 광장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그 광장에는 북한의 두 리더들의 거대한(실물보다 큰) 동상이 해주 경계에 있는 산들과 아름다운 초록빛 자연을 배경으로 하여 대리석 받침대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축제는 매일 이른 새벽 학교 그룹이나 성공적인 작업으로 동상들을 말끔히 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하루 종일 지속되고 저녁이 되어서야 끝이 났습니다. 가려진 확성기에서 음악이 흘러나왔으며 밝은 스포트라이트가

그 동상들을 밤새 비추고 있었습니다. 차량들은 그 동상들 가까이에 가면 서행 하였으며  자전거를 타는 이들은 동상 가까이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걸어가거나 아니면 아예 동상의 먼 쪽에서 광장까지 빙 돌아가는 길을 택하기도 했습니다.  해주를 떠나던 날, 저희는 유니폼을 입은 많은 그룹들이 광장에 모여 스텝을 맞춰 행진하고, 동상 앞에서 경례하며 헌화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큰 광장이 내려다 보이는 해주의 한 호텔에서 관찰한 청소년의 날 행사

정수프로젝트는 요양소들에 영구적인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 요양소들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물이 많은 지역에 전달되고, 이는 환자들과 직원들의 삶의 질을 크게 개선시킵니다. 그들과 나란히 함께 일하며, 저희는 그들에게 진정한 변화를 가져다 주었으며 이는 깨끗한 물을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과 이곳 보건 시설 전체에(매달 수 백 명의 환자들이 치료를 받는) 다른 많은 영향들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설들에서 보살핌을 받는 모든 이들에게 매일 한 컵의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요.

## 국가 결핵 표준 실험실에 대한 멘토링(조언과 도움) 노력이 계속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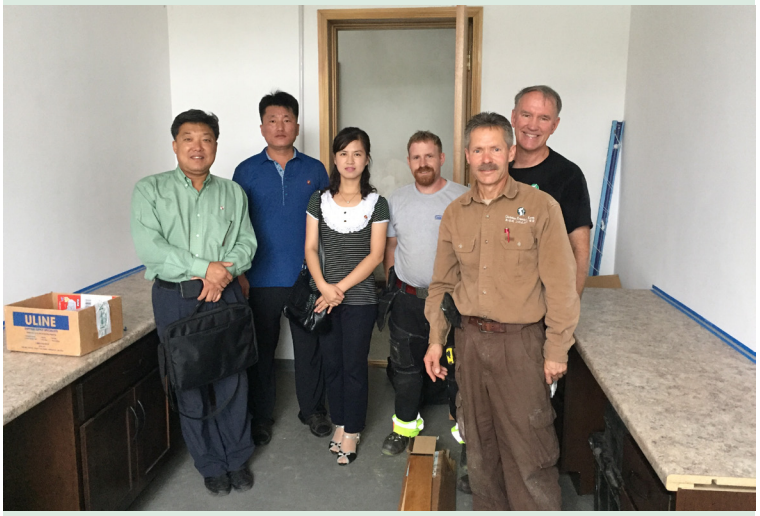
남자들이 해주에서 정수 프로젝트로 일하는 동안, 에드 데스몬드 박사는 국가 결핵 표준 실험실에서 직원들을 상담하고 조언해 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북한은 현재 결핵 발병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로 그 수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실험실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가 결핵 표준 실험실 (건립) 프로젝트가 2009년 초에 시작된 이래로 그곳의 직원들은 꽤 오랜 시간을 거쳐왔지만, 그럼에도 결핵 진단은 매우 유동적이고 까다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기술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 봉사자의 말로 직접 듣다(수기): 존 크레인

CFK 자원 봉사자

국제적 혼란과 큰 소리들이 난무하던 2017년 8월, 저는 노르웨이 봉사자들 (오이스테인, 에이빈드, 구나)과 미국인 봉사자들 (데이브, 랍, 스톤)로 구성된 CFK의 작은 건설팀에 합류하여 17일 동안 북한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랍은 전체적인 팀의 지도를 맡아 주었고, 북한의 가이드들과 운전수들이 저희에게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각 지역에서 마다 저희는 그곳의 직원들과 나란히 일하게 되었으며 협력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서로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북한을 방문한 목적은 이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북한을 방문했을 때(2016년 11월), 저는 CFK 건설팀에 합류하여 평양과 개성에서 간염 실험실을 완공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습니다. 차갑고 건조했던 11월의 날씨는 현재 8월의 후텁지근한 날씨와는 아주 다른, 먼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방문 초기, 저희가 중국에서부터 도착할 중요 건축 자재들을 기다리는 며칠 동안, 저희 팀은 평양 제2 간염 병원에서 캐비닛(보관장)과 작업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이제 이 병원 실험실의 직원들은 실험 벤치에서 몇 발자국 떨어진 거리에 서류 업무나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잘 구비된 사무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희의 동료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역들을 검토하고 저희의 방문을 준비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CFK의 자원봉사자들이 평양 제2 간염 병원에서 서랍장과 작업대 갑판을 설치하고 있는 모습

저희의 다음 프로젝트는 평양 결핵 병원의 아동 병동에 태양열 동력의 수도 시스템을 완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요양소는 태동강 건너편에 위치해 있는데, 이곳은 타일 지붕의 스토리가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저희의 목표는 이전에 CFK가 개발한 우물에 설치된 수동 펌프를 제거하고 그것을 태양열-동력 전기 펌프로 교체한 후 태양열 전지를 설치해 이것들을 수도시스템으로서 연결하는 것, 그리하여 두 개의 실외용 수도와 일곱 개의 실내용 수도에서 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덥고 습한 날씨였지만 맑은 날씨 속에서 이 일은 하루 안에 끝낼 수 있을 쉬운 일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수동 펌프가 보링 구멍(우물 구멍)의 바닥까지 상대적으로 짧은 거리로, 얕은 곳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매우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이 우물이 저희가 굴착할 당시 바닥에서 드릴 날과 자루를 잃어버렸던 그 우물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전기 펌프를 준비해 우물에 넣고 작동시켜 보았는데, 펌프는 즉시 물을 빨아들여 우물을

마르게 만들었습니다. 이 시설이 얼마나 오랫동안 수도 시스템이 설치되기를 기다려왔는지를 잘 알았기 때문에 그 실망감은 매우 컸습니다. 저희는 다른 위치에서 더 깊은 우물을 새로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를 끝마치기 위해서는 다음에 다시 방문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는 그 다음날 수동 펌프를 다시 설치해 주기로 약속하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주일에는 비가 많이 왔는데, 저희는 예배를 드린 후 돌아와 우물에 수동 펌프를 다시 설치하였습니다. 저희는 10월 전에 생산적인 우물이 굴착되어 이 프로젝트를 끝마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편, 중국에서 보낸 저희의 운송품들은 같은 날, 비가 많이 오던 주일의 늦은 저녁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하이디는 저희 동료들과 함께 창고로 가 짐을 내리는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주 사역에 쓸 물건들이 적소에 도착한 것인지 체크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건설팀은 황해남도 해주로 향했습니다. 해주는 역사적으로 큰 기독교적 뿌리가 있는 곳으로, 다른 기독교 선교사들이 한국 내에서 처음으로 요양소를 설립한 곳 입니다. 또한 해주는 셔우드 홀 박사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크리스마스 씰 사업을 시작한 곳이기도 합니다. 해주에서 저희가 처음으로 도착한 곳은 황해남도의 제2 간염 병원(HHH)이었는데, 이곳은 저희에게 새로운 장소였습니다. 이 병원은 B형 간염 치료 프로젝트의 (평양과 개성을 잇는) 첫 확장지가 될 것인데, CFK는 내년에 있을 실험실 개조 프로젝트를 준비하기 위해 올해 우물 굴착 공사(올해 초 여름에 완공됨)와 태양열-중력 가동의 수도 시스템의 설치 등에 착수했습니다. 해주시는 해안 평야에 위치해 있고, 이 시설은 해주시 바로 남서쪽에 있는 평평한 농업지역에 지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는 물탱크 설치에 필요한 고도를 제공할만한 타워를 건축해야 합니다. 저희는 미래의 CFK 간염 실험실에 연결될 물탱크와 태양 전지, 급수전, 그리고 전선들의 위치를 표시해 둠으로써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습니다.

저희가 두 번째로 도착한 곳은 해주 결핵 요양소(HTBRH)였는데, 이곳은 만이 내려다 보이는 아름다운 암석 절벽 위에 위치해 있었고 홀 박사의 결핵 병원과 가까웠습니다. 이 요양소의 우물은 몇 년 전 개발된 것인데, 저희는 그들의 수동 펌프를 고쳐주기 위해 이곳을 두 번 방문했었습니다. 따라서 이 시설에

60명이 넘는 일꾼들이 중력 수도 시스템 설치를 위한 도랑을 파기 위해 함께 일하고 있는 모습

영구적인 수도 시스템을 완공할 수 있다는 것은 저희에게 매우 큰 특권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또한 저희는 물탱크, 수도, 급수전, 태양 전지판을 설치할 위치에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채굴작업이 시작되기는 하였으나, 이곳의 토양에는 바위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딱딱한 사암과 풍화된 화강암을 포함한) 도랑을 파는 작업이 매우 길고 천천히 진행될 어려운 작업일 것임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황해도 제2 간염병원(HHH)에서 먼저 공사를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CFK팀과 병원 책임자들이 완공된 급수탑 앞에서 자랑스럽게 서 있는 모습

화요일은 일의 연속이었는데 60여명의 장정들이 (군복을 입지 않은 수 십 명의 군인들을 포함하여) 다 같이 도랑을 파고 있는 한편, CFK 팀은 물탱크를 위해 필요한 타워를 조립하고 전기 패널을 설치 하였으며, 급수전을 준비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흥미롭게도, 황해 제2 간염병원(HHH)이 세워진 땅은 최소 3피트 깊이 이상이 컵, 접시, 도자기 파편, 금속조각 등 다양한 가정 폐품으로 채워진 것이었습니다. 어떤 도랑에서는 녹이 슨 차량용 잭(들어올릴 때 쓰는 기구)이 발견되었습니다. 아마도 고고학자가 현지 조사를 왔었어야 했나 봅니다. 해주에서의 셋 째 날은 성서에 나올 법한 폭우의 날씨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빗물이 시트 안으로 들어오고 인도로 들이쳤습니다. 오후에는 물 타워를 들어올리고 저수조(물 저장탱크)를 꼭대기에 올리기 위해 트럭 크레인이 도착했습니다. 저희는 이 작은 기계가 작업들을 끝 마칠 때까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넷 째 날의 점심시간이 되어 저희는 HHH에서의 수도 시스템 설치작업을 모두 끝낼 수 있었습니다. 공사가 끝나고 며칠 뒤, 저희는 이 지역을 다시 방문할 수 있었는데, 그들은 깨끗한 물이 나오는 것과 수도가 구내 여러 곳에 물을 공급하는 것, 그리고 내년에 우리가 계획한 실험실 개조작업에 대해 매우 놀라워하며 흥분했습니다. 이 시설의 책임자와 직원들은 저희 팀과 매우 가깝게 일하였으며 필요한 실행계획들을 신경 써 주었고, 저희를 따뜻하게 대접해 주었음은 물론, 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끝나기까지 모든 힘든 일들을 맡아 함께 녹초가 되도록 일하였습니다.

금요일 정오쯤 되어 저희는 해주 결핵 요양소(HTBRH)에서의 작업을 끝마치기 위해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날 저녁까지 물 탱크를 설치하고 수도를 연결해 작동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주에서의 다섯 째 날 저녁이 되어, 저희는 HTBRH에서의 수도 시스템 설치 작업을 99% 완공할 수 있었습니다. 주일에는 두 명의 운전수가 모두 아팠기 때문에 저희는 호텔에 머물러 휴식을 취해야만 했습니다. 월요일, 저희는 HTBRH로 돌아가 저희의 도구들을 싣고 그곳의 직원들에게 새로운 수도 시스템에 대하여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후 저희는 잠깐 HHH에 들러 남은 도구들을 챙긴 뒤 휘몰아치는 빗속에서 평양을 향해 떠났습니다.

화요일, 저희는 평양결핵병원 아동병동(PYTBH-Ped)으로 돌아가 태양 전지판을 설치하고 전선들을 연결하는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CFK가 10월에 돌아오기 전 이 시설에 새로운 우물이 굴착될 것이며, 가까운 미래에 수도 시스템이 설치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도 저희는 바쁜 날을 보냈는데, 먼저 도구 및 자재 목록을 확인하고 CFK 창고 컨테이너에 있는 저장품들을 정리하였으며, 오후에는 관광을 한 뒤 저녁에 송별 식사를 했습니다.

미국인 북한 여행 금지 법안이 시행되기 전 북한을 떠나는 마지막 미국인으로서 저희는 고려 항공 비행기에 탑승을 했는데, 저는 요한 계시록 7장 17절의 말씀과 22장 20절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계 7:17)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계22:20)

## B형 간염 프로그램을 확장시키다

한편, 8월 22일부터 26일까지 평양과 개성에서 B형 간염 치료 클리닉을 열기 위해 여러 명의 내과 의사들이 북한을 방문하는데, 그 전에 저희는 그것을 위한 준비로 평양, 개성 지역 환자들의 혈액 샘플을 채취하여 실험실 분석을 실시하고, 얻어진 결과를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한 뒤 그것들을 출력하여 의사들이 진료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간염 치료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약제 치료를 시작한 저희의 첫 환자들은 이제 치료를 받은 지 거의 1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들은 1년 정기 검진을 받기 위해 클리닉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들을 다시 만나고 지난 번 방문 때 보다 더 건강해지고 나아진 모습을 확인하는 것은 저희에게 진정으로 큰 기쁨이었습니다. 저희 환자들은 각기 다른 배경을 가졌는데 매일의 삶 속에서 그들은 엄청난 압박과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평양 간염 실험실 직원들이 개성의 실험실 직원들을 도와 조언해주고 있는 모습

그들이 견디고 있는 어려움들을 저희가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바디랭귀지로 표현 한 것들을 환자는 말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거대한 짐이 덜어졌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시간을 할애 해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는데, 그들의 얼굴에는 매우 아름다운 미소를 띄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곧 다시 만나요."**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705명의 환자들이 약제치료를 받고 있으며 1400여명이 넘는 환자들이 검진을 받았습니다. 진정으로 생명을 살리는 치료로 말미암아 이렇게 많은 이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저희에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이 환자들의 가족들 역시 이 치료로 인해 자신들의 사랑하는 이가 심각한 질병에서 회복할 수 있다는 것과, 지속되는 치료로 그들이 정상적이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B형 간염 검사를 실시할 때, 프로토콜에 따라 환자의 C형간염 유무도 검사해야 합니다. C형 간염 역시 혈액을 통해 감염되는 바이러스로서 세계적으로 만성 간 질병의 다른 주요 원인입니다. 환자들이 B형 간염과 C형 간염에 모두 걸려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C형 간염 검사도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는 약 50여명의 환자들이 B형과 C형 간염에

테리 스미스가 클리닉에서 환자들을 등록해주고 있는 모습

동시 감염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들 중 많은 이들이 간부전으로 매우 아픈 상태입니다. 저희는 C형 간염 치료가 하루빨리 저희 프로그램에 추가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C형간염은 현재 12-24주 동안 특정 C형 간염 항 바이러스제를 복용함으로써 치료가 가능합니다(대부분의 경우). 문제는 그 약이 매우 비싸다는 점과 치료 프로토콜이 현재 북한에서 가용하지 않은 다른 진단 검사를 추가적으로 필요로 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이 검사가 북한에서 실시될 수 있도록, 그리고 C형 간염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을 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B형 간염 약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과 C형 간염 약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저희는 이 프로그램이 이렇게 단 기간에 큰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하여 매우 놀라워하고 있는 한편, 이 프로그램을 지속하기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모든 외적인 어려움들을 떠나 현재 저희가 직면하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가 그 큰 어려움 중 하나입니다

## 그녀의 말로 들어보다 – 앨리스 은아 리 박사

저희가 처음 북한의 환자 집단을 대상으로 B형 간염 약제치료를 시작한 후로 약 12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난 해 방문 시 느꼈던 그 감정들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클리닉에서 일어났던 기적들의 증인들로서, 저희는 환자들에게서 기대하는 얼굴들과 가슴 벅찬 안도감 그리고 기쁨을 보았습니다. 현재 약 700여명의 환자들이 약제치료를 받고 있는데, 매우 안타깝게도 그 도중 15명의 환자들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22세 밖에 되지 않은 어린 환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잔혹한 현실 앞에

HOPE 프로그램의 의사들인 데이빗, 앨리스, 크리스틴이 한 환자와 상담하고 있는 모습

서 저희는 이 프로그램을 확장시켜야 한다는 긴급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여행 바로 며칠 전 까지 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확실치 않은 심상치 않은 시기이고 방문하지 않는다는 옵션은 아예 선택사항이 아니게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간염 치료 팀은 데이빗, 크리스틴, 그리고 저 이렇게 세 명의 의사들과 저희를 위해 환자들과 제반 환경을 준비해 준 하이디, 테리, 스톤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북한을 향해 가면서, 저희 모두는 저희가 옳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저희는 지금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해 했습니다. 물론, 이번 방문이 여타 다른 방문 때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생각은 불필요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베이징 북한 대사관에서 친숙한 이들에 의해 환영을 받든지, 또는 평양의 출입국 관리관의 얼굴이 미소로 바뀌는 것을 보든지 간에, 저희를 기다려 온 환자들이 친숙한 간염 팀이 돌아오고 있는 것과 사역이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고 저희를 환영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이전보다 더욱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현재 이 프로그램에는 여러 가지 리듬이 있는데, 기술적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터져 나오는 상심의 에너지, 혹은 행복과 기쁨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 클리닉들은 매우 잘 되어가고 있고, 환자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비치며, 이제는 프로그램에 익숙해진 지역 의사들이 자신들도 결국 병든 환자들을 도울 수 있는 권한이 생겼다는 것에 대한 만족감 역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 감정적, 그리고 영적 변화들을 목격하는 것은 참으로 묘사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많은 경우 알아보기가 어려운데, 그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말하는 것을 조금 부끄러워 하기도하고, 계속해서 고통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 무엇인지, 감히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다른 인생의 끝을 기대하고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 등을 설명하기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동시에, 그들은 자신의 운명이 어떻든지 간에 완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간암을 진단받거나 저희가 환자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 것도 없어 미안하다고 말할 때, 그들은 담담히 그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저는 그들의 은혜와 용감함 앞에서 계속 겸손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저로 하여금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과 그리고 해야만 한다는 것을 고취시킵니다. 그것을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복잡하고 벅찬 일이든지 간에,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앞으로 이끌어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든지 간에 더 많은 사랑을 가지고 더 많은 환자들을 돌보고 치료해야 한다는 것, 그리하여 우리가 그들의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북한에 새롭게 도착한 테노포비어 운송품; 이 것은 1년동안 약 940명의 환자들을 치료하기에 충분한 양입니다

그 기쁨들은 지금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낸 두 번째 약제 수송품을 받고 그것이 저장실에 놓여지는 것을 본 환자들이 미소를 띄며 우리에게 인사를 하러 오는 것, 그들이 이전보다 훨씬 나아졌다는 것과 많은 새로운 환자들이 우리를 신뢰하고 있는지 우리가 잠정적으로 숙고하고 있다는 것을 듣고 있다는 것, 기다리는 환자들이 병원 복도를 지나면서 보내는 친숙한 인사들(목례), 의사들이 명확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많은 환자들을 돌보고 일하는 것 등등. 비가 억수같이 내리고 또 내려 도로가 물에 잠기자 저희는 우회하여 길을 지나야 했습니다. 의사들은 셔츠와 바지를 걷어 올리고는 홍수의 잔재들을 청소했습니다. 저는 도대체 이 병원 직원

들이 하지 않는 일은 무엇일까 하고 궁금했습니다. 저희는 항상 서로에게 배우는 점이 많은데, 지식에 대한 목마름은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환자와 의사들 모두 눈이 더 커졌습니다. 지역에 있는 책들은 오래되고 수년간 넘겨진 페이지들은 누더기처럼 변하고 얼룩졌으며 얇은 페이지는 구식이지만 여전히 중요한 사실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저희는 더 많은 시간이 허락되었으면 혹은 날이 더 길었으면,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나누며, 더 많이 배우고 가르칠 수 있으면 하고 아쉬워했습니다.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호주에서의 안락한 삶 속에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정말로 일어난 실제였는지, 아니면 그저 먼 꿈이었는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들은 실제라는 것을, 그리고 그들이 끊임없는 사랑과 헌신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 9월 1일 발효된 북한 여행 금지 법안이 CFK의 현재 진행 중인 인도주의적 사역에 큰 불확실성을 드리우다.

미국인 북한 여행 금지 법안이 9월 1일부터 시행됨으로써 미국 여권 소지자인 저희는 CFK가 진행하고 있는 사역과 관련하여 큰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현재, 인도주의적 사역을 위해 북한을 합법적으로 방문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북한에서 비자 승인을 받는 것은 물론 미국 여권 소지자인 팀 멤버 각자가 특별 미국 여권을 받아야만 합니다.

저희는 10월 중순으로 계획된 2017년도 네 번째 북한 방문을 위해 이미 미국 정부에 특별 승인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방문허가는 몇 달째 진행 중에 있는데 북한 측에서는 이미 승인된 것입니다. 미국 측의 검토와 승인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저희 사역이 차질 없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예정된 방문에서 저희는 최근 몇 달 동안 여러 결핵 및 간염 요양원들로 보낸

(11번의) 수송물자들의 도착/배분을 확인할 것입니다. 또한 500명이 넘는 B형 간염 환자들을 대상으로 후속 검사들을 실시하고 새로운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한 검진을 수행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는 국가 결핵 표준 실험실과 간염 실험실에서 멘토링(조언 및 도움) 시간을 계속해서 가져야 하며 망가진 것들을 수리할 것입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 저희는 강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상호 간의 큰 신뢰를 쌓아 사역의 굳건한 기반을 닦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정치적/안보적인 맥락 속에서 뒤흔드는 이러한 바람으로 말미암아 그 기반들을 잃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공중 위생부와 저희의 다양한 북한 동역자들은 저희가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지속할 수 있도록 다시 북한에 돌아오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또한 미국 정부가 이 사역이 방해 받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허가해 주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원들은 매일 아침 예배시간 동안 고린도전서와 에베소서를 공부하였습니다. 말씀을 읽고 예배 드리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은 저희로 하여금 우리 주님의 신실하심과 그의 주권, 그리고 은혜를 상기시켜 주었으며 우리가 매일 어려움에 직면하고 문제들에 부딪칠 때마다 용기를 주었습니다. 저희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명백히 드러나기를, 수많은 길에서 우리가 크고 작은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현재 저희는 돌아가고 있는 세계적 전후 사정과 외부적 상황에 대하여 냉정하게 판단하고 유의하고 있음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희가 매일을 살아가기에 충분한 평안을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신실한 기도와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은 저희 사역의 노력들을 든든하게 뒷받침 해줄 뿐만 아니라 현재 흐르는 극도의 긴장감과 벅찬 어려움들 속에서도 이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하고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이 됩니다. 이번 방문을 마치고 저희가 북한을 떠나올 때, 많은 지역 주민들이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큰 아쉬움을 표현했으며 저희가 곧 다시 그들에게 돌아와 주기를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공무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당국의 지침은 '인민 우선-중심'의 정책입니다.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은 진정으로 주민들의 삶을 돕는 최선두에 있는 NGO들 중 하나입니다. 저희는 진정으로 저희 주민들을 돕는 팀을 초대하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이 그 사역을 계속하여서 CFK가 우리 조국의 인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새로운 간염 약제의 모습

CHRISTIAN FRIENDS OF KOREA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

CHRISTIAN FRIENDS OF KOREA
PO Box 936 • 129 Center Avenue • Black Mountain, NC 28711
phone: (828) 669-2355 • fax: (828) 669-2357
email: cfk@cfk.org • website: www.cfk.org
Like us on Facebook ( ChristianFriendsofKorea)
or follow us on Twitter ( TheCFKorea)

Christian Friends of Korea is a tax-exempt, non-profit organization founded in 1995 to share the Gospel of Jesus Christ through humanitarian, educational, and religious programs. Contributions to CFK are tax-deductible to the extent allowed by law. CFK also accepts stock or in-kind donations. Please make all checks payable to "Christian Friends of Korea" or "CFK". If you are interested in supporting the work of CFK or requesting information or materials, please contact us via phone or email.